

복음과 상담  
제21권, 222-254

# 불안정 애착의 세대 간 전이를 경험한 어머니-자녀에 관한 사례연구: Bowen의 가족상담이론을 중심으로

이 다 미\*

## 국문초록

애착유형, 애착의 세대 간 전이, Bowen의 가족상담이론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다세대 가족상담은 가족의 정서과정이 역사를 통해 지속되고, 이전 세대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유사한 유형으로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의 세대 간 전이를 경험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색하고,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어머니와 자녀에게 Bowen의 가족상담이론을 활용하여, 어머니-자녀의 관계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한다.

연구대상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자 청소년으로 또래친구들과 다툼이 잦으며, 지각, 무단결석, 가출 등으로 인하여 어머니와 심한 갈등이 있다고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형성은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자녀의 문제행동에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연구참여자 가족의 애착유형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 어머니, 외할머니는 불안정 애착유형이 전수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어머니-자녀에게 Bowen의 가족상담이론을 적용한 결과, 연구참여자 가족의 기능과 체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연구참여자는 상담을 통하여 어머니-자녀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또래관계, 학교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중심단어** : Bowen의 가족상담이론, 애착, 애착의 유형, 내적 작동 모델, 애착의 세대 간 전이

• 논문 투고일: 2013년 10월 18일

• 논문 수정일: 2013년 11월 2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11월 12일

\* 연세대학교

## I. 여는 글

유아가 태어나면 자신을 돌보는 사람, 특히 어머니와 강한 정서적 유대를 맺게 되는데 이것을 애착관계라고 한다. 미소짓기, 웅얼이하기, 잡기, 매달리기, 울기 등 아기의 행동들은 부모로 하여금 아이에게 접근해서 보살피고, 상호작용하도록 독려할 뿐만 아니라 자극과 애정을 기울이게 해준다. 애착연구 초기에는 애착이란 영아와 양육자 간에 형성되는 애정적 유대관계만을 의미하였다.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이 전생애를 통하여 계속되고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애착이 형성될 수 있으며, 애착은 영아와 양육자 간에 국한되지 않고 전생애를 통해 발달할 수 있는 애정적 유대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영아기 동안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 또래들 간에 인기가 많고 사회적 유능성이 높으며, 성인이 되어서 누군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sup>1)</sup> 안정애착의 핵심은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상호작용의 양보다는 질이 더욱 중요하다.<sup>2)</sup> 어머니의 애착유형은 자녀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 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학교생활적응도,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다.<sup>3)</sup> 아동이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경우에는 또래들과 부정적이고 비수용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sup>4)</sup>

1) 정옥분, 『전생애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2004), 243-251.

2) Jeremy Holmes,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London: Routledge Publisher, 1993), 107.

3) 전효정, “어머니-유아 애착의 세대간 전이의 메커니즘”, 열린육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연구』 제8권 3호(2003): 159-174; 이경혜, “불안애착아 발생 위험요인의 예측과 세대간 전이에 대한 조기중재”,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정서·행동장애연구』 제26권3호(2010): 91-111; 채영이, “중학생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6), 47-48.

4) 박애규,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우울 및 대인불안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9), 42.

이와 같이, 자녀의 불안정 애착형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행동에 관한 상담을 진행할 경우, 자녀-개인에게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부모의 애착유형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애착이론과 자아분화이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애착유형이나 자아분화 수준이 세대 간에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아기 때 형성된 애착은 생애 전반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성인이 된 후의 배우자 선택에도 비슷한 애착유형을 만나게 된다. 부모의 양육태도도 원가족 부모의 양육태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애착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Murray Bowen의 다세대 전수과정도 원가족으로부터 미해결된 문제와 분화수준이 자녀에게 대물림 될 수 있다.<sup>5)</sup>

가족은 체계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unit)이고, 단위로서의 가족은 거리감과 친밀감의 순환이 존재한다. 체계론적 가족상담의 선구자인 Bowen은 정신분열증 연구 참여자와 그들의 가족관계에 흥미를 갖고 연구 참여자와 가족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였다.<sup>6)</sup> 그는 정신분열증 모자를 임대주택에 살게 하면서 이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정신분열증 모자관계에서 강렬한 불안애착과 불안격리의 정서적 긴장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병리적 애착을 발견하였다.<sup>7)</sup> Bowen의 초기 관심사는 어머니와 자녀 간의 애착 또는 공생관계였으며, 그는 자녀의 정서장애는 개인의 병리적인 과정이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 간의 애착의 산물이라고 하였다.<sup>8)</sup> Bowen은 8가지 개념으로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5) 황영훈·박은영, “애착이론과 자아분화이론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1권 1호(2003): 158-173.

6) Michael E. Kerr & Murray Bowen, *Family Evaluation* (New York: W. W. Company, 1988), 4-8.

7) 정문자 외, 『가족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7), 128.

8) Daniel V. Papero, *Bowen Family Systems Theory* (Boston: Allyn & Bacon Press, 1990), 37.

문제행동은 삼각관계, 융합, 정서적 단절 등의 행동장애에서 비롯된 불안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행동은 가족 중 분화하지 못한 사람이 증상으로 발달시키거나 갈등의 중심에 있기 쉽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Bowen 접근은 한 개인이 원가족과 정서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각 개인의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고, 다세대 가족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한 가족이라는 맥락에서 인식하려는 접근이다. 가족정서체계(family emotional system) 가족상담은 한 사람의 변화에 의해서 전체 가족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가족을 포함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 접근에서는 핵가족을 아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이해하거나 변화를 가져오는 데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여 확대가족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sup>9)</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애착유형, 애착의 세대 간 전이, Bowen의 가족상담이론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왜냐하면 다세대 가족상담은 가족의 정서과정이 역사를 통해 지속되며 이전 세대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문제는 지속적인 유형으로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10)</sup> 그러므로 불안정 애착 유형이 세대 간 전수되어진 연구참여자의 상담을 진행할 경우, 반복되고 있는 가족과정과 구조를 파악하고, 연구참여자의 분화수준을 높여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의 세대 간 전이를 경험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색하고,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어머니와 자녀에게 애착증진을 위해서 Bowen의 체계론적 가족상담이론을 활용하여, 어머니-자녀의 관계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9) 김유숙, 『심리치료이론과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2012), 217-218.

10) 정문자 외, 『가족치료의 이해』, 127.

## II. 펴는 글

### 1. 이론적 배경

#### 1) 애착이론

##### (1) 애착이론의 발달

애착이론의 발달에서 가장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John Bowlby와 Mary Ainsworth를 들 수 있다. Ainsworth는 애착에 대한 Bowlby의 생각을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Bowlby는 어머니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 기존의 관점과는 상이한 이론적 가정을 설정함으로써 애착이론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Bowlby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고아원에서 성장한 아동들에게 타인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Bowlby는 이러한 아동들이 생의 초기에 어머니에 대한 확고한 애착을 형성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애착이론과 정신분석이론의 개념들과의 차이가 정신분석학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으나 Bowlby의 애착이론은 신경증적 발달보다는 정상적인 발달의 관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Bowlby이론은 개인내적이거나 대인관계이론이며, 유아의 삶에서 내적 갈등이나 본능적 추동(drive)보다는 애정 어린 보살핌과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애착이론은 대인관계이론과 연관성이 있다. 애착이론은 초기에는 정신분석학회로부터 결렬한 비판을 받았으나, 궁극적으로는 정신분석학의 여러 이론적 관점을 수용하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sup>11)</sup>

애착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진아는 불안정한 애착으로 인하여 불안장애 아동에게 놀이치료를 실시하였고, 안명희는 어머니

11) 정옥분, 『전생애의 발달이론』, 242; 정옥분 외, 『애착과 발달』 (서울: 학지사, 2009), 63-81.

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sup>12)</sup> 김재철, 성경주와 최원형은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은 병존하면서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부모애착 영향의 지속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13)</sup> 박영주와 이영호는 불안애착은 의존적 우울경험양식의 매개를 거쳐 비주장성, 피착취성, 헌신성, 간섭성 영역인 의존적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sup>14)</sup> 그리고 나선영과 안명희는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옥정과 방희정은 2세 전후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애착표상과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파악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sup>15)</sup>

애착에 관련된 국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Pamela Meredith는 애착과 작업치료에 대한 관련성에 대하여 밝히었고, Yolanda van Ecke 등은 애착이론과 가족치료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Cecilia Pace 등은 4-7세 입양된 어린이들의 애착유형의 변화에 관하여 연구하였다.<sup>16)</sup> Charles

- 
- 12) 박진아, “까다로운 기질과 불안정한 애착으로 인한 불안장애 여아의 놀이치료 및 어머니 상담 사례연구”,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놀이치료연구」 제12권 1호(2008): 51-69; 안명희,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일반」 제29권 4호(2010): 867-885.
- 13) 김재철 외,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의 영향 비교”, 한국아동교육학회, 「아동교육」 제19권 1호(2010): 92-113.
- 14) 박영주 · 이영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임상」 제29권 2호(2010): 441-452.
- 15) 나선영 · 안명희,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여성」 제16권 3호 (2011): 331-355; 옥정 · 방희정, “애착의 세대간 전이: 탐색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5권 2호(2012): 45-65.
- 16) Pamela Meredith, “Introducing Attachment Theory to Occupational Therapy,”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56 (2009): 285-292; Yolanda van Ecke, Robert C. Cope, & Paul M. Emmelkamp, “Bowlby and Bowen: Attachment Theory and Family Therapy,”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Journal* 3(2006): 81-108; Cecilia S. Pace & G. C. Zavattini, “‘Adoption and Attachment theory’ the Attachment Models of Adoptive Mothers and the Revision of Attachment Patterns of their Late-Adopted Children,”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7 (2010): 82-88.

Zeanah 등은 부모와 자녀의 애착관련성, 애착유형의 두드러진 차이, 그리고 애착에 관한 임상진단 및 평가 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Panagiotis Parpottas는 애착이론에 인지행동치료를 적용한 치료적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Shannon O'Gorman는 자녀의 문제행동, 애착과 가족구조의 연관성에 관하여 보고하였다.<sup>17)</sup> 애착 증진에 관련된 집단상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전우경과 이한옥은 애착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최연화는 원가족 애착을 중심으로 대학생 커플관계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sup>18)</sup> 서은주와 이현림은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성인애착, 자아존중감, 모-자녀 상호작용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sup>19)</sup>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애착관련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애착 증진을 위한 가족상담 사례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 (2) 애착의 유형

애착이란 개인의 여러 가지 애착상태와 질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용어이고, 이론적인 면과 경험적인 면을 함축한다. 이러한 애착들은 안정 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나눌 수 있다. 애착을 느낀다는 것은 안전하고

17) Charles H. Zeanah, Lisa J. Berlin & Neil W. Boris, "Practitioner Review: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2(2011): 819-833; Panagiotis Parpottas, "Working with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i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rom an Attachment Theory Perspective," *Counselling Psychology Review* 27(2012): 91-99; Shannon O'Gorman, "Attachment Theory, Family System Theory, and the Child Presenting with Significant Behavioral Concerns," *Journal of Systemic Therapies* 31 (2012): 1-16.

18) 전우경, "영아의 애착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효과"(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2), 158; 이한옥, "애착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8), 31-38; 최연화, "원가족 애착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 커플관계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1), 44-63.

19) 서은주 · 이현림,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성인애착, 자아존중감 및 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제18권 2호(2011): 101-123.

안정적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을 뜻한다. 대조적으로 불안정 애착을 느끼는 사람은 애착 대상에 대하여 강렬한 사랑, 의존, 거절에 대한 두려움, 성급함, 그리고 경계심 등 복잡한 감정을 느낄지도 모른다. 안정감의 결핍은 애착 대상이 가까이 있는 것을 원하면서도 버림받을 신호가 느껴지면 분노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불안정 애착을 느끼는 사람은 애착 대상에게 버림을 받거나, 그들이 떠날 것 같은 신호가 느껴지면, 애착 대상에게 상처를 주려고 할지도 모른다.<sup>20)</sup>

Ainsworth는 8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된 낯선 상황 실험을 실시하여, 애착형성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안정애착 유형은 주위를 탐색하기 위해 어머니로부터 쉽게 떨어진다. 그러나 낯선 사람보다 어머니에게 더 확실한 관심을 보이며, 어머니와 함께 놀 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어머니와 격리되었을 때에도 어떤 방법으로든 능동적으로 위안을 찾고 다시 탐색과정으로 나아간다. 둘째, 회피애착 유형은 어머니에게 반응을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어머니가 방을 떠나도 울지 않고, 어머니가 돌아와도 무시하거나 회피한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추구하지 않으며, 낯선 사람에게나 어머니에게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셋째, 양가적(저항) 애착유형은 어머니가 방을 떠나기 전부터 불안해하고, 어머니 옆에 붙어서 탐색을 별로 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방을 나가면 심한 분리불안을 보인다. 어머니가 돌아오면 접촉하려는 시도는 하지만, 안아주어도 어머니로부터 안정감을 얻지 못하고, 분노를 보이면서 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어머니를 밀어내는 양면성을 보인다. 넷째, 혼란애착 유형은 불안정애착의 가장 심한 형태로 회피애착과 저항애착의 결합된 것이다. 어머니와 재결합했을 때에도, 얼어붙은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접근하거나 어머니가 안아줘도 먼 곳을 쳐다본다.<sup>21)</sup>

20) Holmes,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67-68.

21) 정옥분, 『전생애의 발달이론』, 247-248.

## (3) 내적작동모델과 애착의 세대 간 전이

애착이론가들은 초기의 애착관계가 전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초기의 애착관계를 통해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고, 이 내적인 표상이 영유아기뿐만 아니라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와 같이 전 생애 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 영아기에 자신을 가장 많이 보살피주는 주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애착형성은 생존을 위한 종 특유의 본능인 동시에 동기적 행동체계이다. 주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이를 통해 내적 표상을 형성하고, 이러한 표상은 이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sup>22)</sup>

어렸을 적 자신의 애착안정성에 대한 어머니의 기억과 느낌, 즉 내적 작동모델이 지금 현재 자신과 자녀와의 관계와 양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양육자에 대해 긍정적인 작동모델을 형성한 아동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이후 친구나 배우자와 상호 신뢰적 관계를 이루며, 더 나아가 자신의 자녀를 보다 민감하게 양육함으로써 안정애착을 형성하게 한다. 이와 같이 개인의 어린 시절 주양육자와 형성된 애착은 내적 작동모델을 통해 자신의 전 생애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애착의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진다. 애착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한 개념은 발달에 미치는 애착의 영향력의 범위가 수평적인 동시에 수직적임을 나타낸다.<sup>23)</sup>

## 2) Bowen의 가족상담이론

Bowen의 주요개념을 살펴보면, 첫째 자기분화는 개인의 자기분화를 뜻하며,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동시에 자율성을 지니고 있는

22) 정옥분 외, 『애착과 발달』, 185.

23) 정옥분 외, 『애착과 발달』, 197-198.

다양한 능력을 의미한다.<sup>24)</sup> 즉, 자기분화는 정신내적 개념인 동시에 대인관계적 개념으로 정신내적으로는 사고와 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대인관계적으로는 자신과 타인 사이의 분화를 의미한다.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차별되는 자신만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며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타인과 친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도 융합되지는 않는다.<sup>25)</sup> 자기분화가 높은 사람은 진짜 자신의 비율이 높아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자, 구축자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신을 보호하거나 과장하기 위하여 가짜 자신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없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세상과 자신을 지으신 목적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자기분화가 높은 사람일 것이다.<sup>26)</sup> 아브라함의 4대 가족을 살펴보면 분화수준이 올라가는 것과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안한 상황에서도 사람과 삼각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지적 체계를 사용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하였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진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개별성을 잘 유지하면서 가족과 화해하는 연합성의 조화가 나타났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분화수준과 믿음이 높아지는 과정 뒤에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 그의 주권과 은혜에 자신을 의뢰하는 사건들이 있었다.<sup>27)</sup>

둘째, 삼각관계는 어떤 두 사람이 자신들의 정서적 문제에 또 다른 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형태를 기술하는 개념이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면 불안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물이나 사람을 끌

24) Papero, *Bowen Family Systems Theory*, 45.

25) 정문자 외, 『가족치료의 이해』, 133.

26) 최은영, “보웬의 자아분화와 룯기 신학”, 한국목회상담학회, 『목회와 상담』제19권(2012): 212.

27) 조난숙 외, “창세기 가족의 보웬 가족상담적 분석 및 성경적 함의”, 한국기독교 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 제20권(2010): 314.

어들이는 경우가 많다.<sup>28)</sup> 창세기 가족 내 삼각관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또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와 연합한 사람에 의해 불안이 감소되면서 해체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삭이 태어나면서 다시 불안해진 아브라함 가족은 “아브라함-사라 모자-하갈 모자”라는 삼각관계를 형성하였으나(창21:9-21)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요구를 들어 하갈 모자를 광야로 보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 갈등은 해결되었고 삼각관계는 해체되었다. 이렇듯 탈삼각화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개인의 불안이 그와의 이자 관계에서 흡수될 때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sup>29)</sup>

셋째, 핵가족 정서체계는 가족 내에 불안이 증가할 때 가족의 역기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뜻한다. 핵가족 내에서 역기능은 부부갈등, 배우자의 역기능, 자녀의 역기능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가족의 분화정도가 낮을수록 정서적 역기능들이 활발히 작용하게 된다.<sup>30)</sup>

넷째, 다세대 전수과정은 정서체계에 기반을 두고 한 세대로부터 다음세대로 전수된 정서, 감정, 그리고 주관적으로 결정된 태도, 가치, 신념을 포함한다.<sup>31)</sup> 증상이 전수되는 것과 같이, 자기분화, 삼각관계, 융합, 정서적 단절 등 부모-자녀 간의 정서과정이 전수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과 융합이 심한 자녀는 분화수준이 낮을 수 있고, 가족과 융합이 덜한 자녀는 분화수준이 높을 것이다.<sup>32)</sup> 다세대 전수는 윗세대의 분화되지 않은 감정이 세대 간의 융합이나 삼각관계를 통해서 아래 세대로 계속되는 현상이라고 볼 때 아브라함 가족의 불안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가족투사과정을 통해서 확산되는 특징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을

28) 김유숙, 『심리치료이론과 가족치료』, 220.

29) 조난숙 외, “창세기 가족의 보웬 가족상담적 분석 및 성경적 함의”, 321-322.

30) Kerr & Bowen, *Family Evaluation*, 4-8.

31) Kerr & Bowen, *Family Evaluation*, 163-168.

32) Michael P. Nichols & Richard C. Schwartz,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Boston: Allyn & Bacon Press, 2001), 142.

있는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장자가 아니었다. 여기서 장자권으로 인한 불안의 전수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의 성취는 인간의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있는데도,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런 아버지 아래에서 차남이었던 야곱은 장자권의 획득을 위한 헛된 책략을 피하였다. 야곱의 열두 명의 자식 중, 장자인 르우벤이 아닌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계승하고 유대가 다윗에게로 이어지는 왕권을 갖게 된다(대상5:1-2). 이는 유대의 아들과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데(창38:29, 48:19), 장자권으로 인한 불안과 형제들의 갈등은 이삭과 이스마엘부터 요셉의 형제들까지 대를 통해 전수되는 것을 볼 수 있다.<sup>33)</sup>

다섯째, Bowen은 출생순위 또는 형제자매 위치가 가족의 정서체계 안에서 특정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고 보고,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역시 그들의 원가족에서의 형제 위치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형제자매 위치가 반드시 출생순위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실제 출생순위보다 가족 내의 기능적 위치에 의존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여섯째, 정서적 단절은 투사과정에 많이 개입된 자녀에게 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원가족을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 부모의 집에서만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부모와 말을 하지 않는 등 부모와의 접촉을 끊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곱째, 가족투사과정이란 미성숙한 부모가 가족체계나 부부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자녀 중 가장 유아적이고 취약한 자녀를 투사 대상으로 선택한다. 여덟째, 사회적 정서과정 개념은 사회가 전쟁, 인구증가, 성차별 등과 같은 만성적 스트레스 상황에 처할수록 사회의 불안은 커지고 그 결과 결속에 대한 압력이 강해지며 분화수준이 감소한다는 것이다.<sup>34)</sup>

33) 조난숙 외, “창세기 가족의 보웬 가족상담적 분석 및 성경적 함의”, 307-308.

34) 정문자 외, 『가족치료의 이해』, 142-147.

Bowen이론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보영은 한국가정의 만이문제에 관하여 Bowen이론에 입각한 상담방법을 제시하였다. 신혜섭은 Bowen의 가족상담이론이 가족을 다세대적 현상으로 보고 확대가족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현재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가족개념에 보다 근접하다고 하였다.<sup>35)</sup> 최선령은 Bowen의 가족상담이론을 통하여 확대피해 여성이 개선되는 과정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박태영과 박진영은 틱 장애 아동과 가족에게도 Bowen의 가족체계 이론이 효과가 있었다고 밝히었다.<sup>36)</sup> 이영하와 최광현은 Bowen의 가족상담이론과 교류분석(TA)의 인생각본의 개념들을 비교하였고, 김영근은 Bowen의 가족상담이론을 중심으로 신학대학원생이 작성한 가계도와 가정의 역사를 근거하여 그들의 가족배경과 정서체계를 분석하였다.<sup>37)</sup> 최은영은 룯기의 두 여자 주인공, 나오미와 룯의 자아분화 정도를 기술하고, 룯기 신학의 관점에서 Bowen의 자아분화 개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sup>38)</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애착형성과정 및 애착유형이 부모-자녀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는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불안정 애착유형의 애착증진에 관한 상담 사례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어머니-자녀에게 애

35) 신혜섭, “보웬 가족치료 이론과 한국적 적용에 대한 고찰”, 동덕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 제7권(2002): 193-201; 정보영, “한국가족의 만이문제와 치유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2010), 59-89.

36) 최선령, “아동기 확대피해 여성의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5권1호 (2007): 159-188; 박태영·박진영, “틱장애 아동의 가족치료 다중사례 내용분석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8권 2호(2007): 27-56.

37) 이영하·최광현, “가족각본의 목회상담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0 권(2013): 219; 김영근, “보웬의 가족치료이론에 근거한 신학대학원생의 가족배경 분석과 상담”,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6권(2011): 173.

38) 최은영, “보웬의 자아분화와 룯기 신학”, 188.

착증진을 위해서 Bowen의 가족상담이론을 활용한 상담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어머니와 자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1) 연구절차

○○도 H시 A상담센터에 의뢰된 남자 청소년(15세, 중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어머니와 갈등 관계이며, 아버지와 소원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상담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총 9회기에 걸쳐 개인 및 가족상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질적 사례 연구에서는 풍부한 의사소통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선입견을 배제하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흡수할 수 있는 기술, 탐구적 정신으로 관찰하는 능력, 명료성 등이 필요하다.<sup>39)</sup> 그러므로 본 연구자가 직접 상담 과정에 개입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행동, 표정, 목소리 크기 등의 변화를 관찰하고 내용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자는 Bowen의 가족상담이론을 중심으로 본 사례를 직접 상담하였으며, 주 1회 매 회기마다 약 1시간 정도 상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상담 과정에 개입하면서 연구참여자와 어머니의 행동과 대화를 직접 관찰하고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매 회기 녹취록을 전사하였다.

#### (1) 연구참여자의 주 호소 문제

연구참여자는 중학교에 다니는 남자 청소년(15세)으로 학교에서 또래 관계의 어려움, 담임선생님과의 갈등, 가족 내 갈등 및 소외 등을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어머니는 연구참여자가 친구들과 다툼이 잦으며, 지

39) 신경림 외,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448-474.

각, 가출, 무단결석 등으로 인하여 연구참여자와 어머니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호소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어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비난을 할 때, 화가 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비난하는 말을 듣거나 타인과 갈등관계가 생기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 (2) 연구참여자 가족의 역동성 이해

연구참여자 부모의 부부관계는 부부갈등이 있으며, 연구참여자와 어머니는 갈등관계, 연구참여자와 아버지는 소원한 관계이다. 연구참여자의 아버지는 자녀양육이나 가족 일에 관심이 거의 없고,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어졌다. 연구참여자의 어머니는 연구참여자의 여동생과 밀착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어머니의 원가족을 살펴보면, 어머니 역시 친정어머니와 갈등관계였으며, 친정아버지와 소원한 관계였다. 어머니의 친정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어졌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부모는 부부갈등에서 생긴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자녀의 역기능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의 어머니는 책임감이 강하고 많은 것들을 혼자 수행하려고 하는 과대기능을 하고 있는 반면, 연구참여자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며 직장을 자주 옮기는 등 과소기능을 하고 있다.

## 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하기 위해서 John Creswell의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선정하였다. Creswell의 질적 사례연구 분석방법은 자료 정리, 읽기와 메모, 기술, 분류, 해석, 제시 등 6단계로 이루어진다.<sup>40)</sup> 본 연구자는 자료 정리 단계에서 상담의 모든 회기를 전사하여 원자료화 하였다. 매회기 기록한 관찰 일지와 전사한 자료를 비교하여 연구참여자의

40) John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조홍식 외 역,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2010), 219.

행동, 몸짓, 목소리, 표정 등을 정리하였다. 읽기와 메모하기 단계에서는 각각의 원자료를 여러 차례 읽은 다음 회기별로 코딩을 실시하였다. 기술의 단계에서는 각 회기의 상담과정을 살펴보고, 각 회기마다 중심 주제를 기술하였다. 분류의 단계에서는 각각의 회기마다 활용된 Bowen의 상담 기법을 각각의 주제별 범주화하여 분류하였다. 해석의 단계에서는 Bowen의 가족상담 이론의 상담기법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반응과 가족의 변화과정을 해석하였다. 제시의 단계에서는 Bowen의 가족상담과정을 통한 연구참여자의 문제행동, 또래관계, 가족관계의 변화를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자료 분석을 마친 후 축어록을 다시 읽으면서 예외사례가 없는지 점검하였고, 가족상담분야 동료 연구자 2인의 자문과 검토과정을 진행하였다

### 3. 연구결과

#### 1) 상담 진행 과정 및 주요 변화

〈1회기〉 연구참여자, 모 상담: 연구참여자의 주 호소문제 확인 및 핵가족 역동 탐색

1회기에서는 연구참여자와 어머니의 주 호소 문제를 확인하고 연구참여자의 가족역동을 탐색하는 질문 등을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부모로부터 어려서부터 많은 지적과 잔소리를 들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부모가 여동생과 자신을 차별한다고 하였고, 어머니 또는 담임선생님의 지적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서 집 또는 학교를 나가고 싶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아버지는 직업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은 잦은 이사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연구참여자는 또래 친구들을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연구참여자의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불안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와 아버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는 아버지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으며, 아버지와 연구참여자 단 둘이 있게 되면 서로 어색하다고 하였다. 또한 휴일에도 연구참여자의 아버지는 컴퓨터를 하거나 잠을 자는 등 자녀들과의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회기〉 연구참여자, 모 상담: 모의 양육 상담 및 모의 원가족 탐색

2회기에서는 연구참여자의 핵가족뿐만 아니라 확대가족까지 관계질문을 하였다. 연구참여자 어머니의 성장배경을 탐색하고,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애착유형을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의 핵가족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원가족 관계기능 및 반복되는 패턴 등을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어머니는 우울과 자살 충동 등을 호소하였다. 이것은 자녀양육에 일관적인 양육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양가감정을 갖고 있었다.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동시에 갖고 있고, 아들이 남편과 비슷한 행동을 할 때, 남편에 대한 원망, 분노를 아들에게 표현한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친정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폭력,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가족을 돌보지 않았으며, 어머니는 자신의 친정아버지에게 사랑받은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자신의 친정어머니도 경제적인 부담을 해결하시느냐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으며, 친정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아동기, 청소년기 시절에 주 양육자가 자주 바뀌었으며 불안, 우울,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청년초기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초기부터 남편은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직장을 자주 옮기는 등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 와 어머니, 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애착형성과정을 살펴보면, 불안정 애착형성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회기〉 연구참여자 상담: 연구참여자의 애착형성 과정 및 그로 인한 영향력 탐색

3회기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애착형성 과정 및 그로 인한 영향력 등을

탐색하고, 연구참여자가 학교생활, 또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는 어머니에게 안기려고 해도, 어머니가 피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성장과정 중에 어머니, 외할머니, 친할머니 등 주 양육자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 이로 인하여, 연구참여자는 영, 유아기부터 충족되지 못한 애착욕구가 현재에도 충족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는 어머니와 밀착된 관계에 있는 동생을 괴롭히는 것 등으로 인하여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부모님이라고 하였지만, 자신이 꾸중 중에 가장 좋은 꿈은 부모님이 잘해 줄때라고 하면서, 부모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을 나타내었다. 학교에서 연구참여자의 관계형성을 살펴보면, 지각, 무단결석, 조퇴 등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고, 수업시간에 거의 대부분 엎드려 잔다고 하였다. 또한 또래관계에서도 감정 조절이 되지 않으면 폭력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애착형성을 한 연구참여자는 자신에 대하여 사랑받을 가치도 없고 쓸모없다는 부정적인 내적작동모형을 형성하여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대하여 도피하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낼 수 있다.<sup>41)</sup>

지금같이 살펴본 것과 같이, 연구참여자와 어머니, 외할머니의 애착형성을 살펴보면,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 형성된 애착이 내적작동모형을 통해 세대 간에 전이됨을 알 수 있다. 어렸을 적 자신의 애착안정성에 대한 어머니의 안정과 느낌, 즉 내적 작동모형이 지금 현재 자신과 자녀와의 관계에 양육을 미친다<sup>42)</sup>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사례에서도 연구참여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친정어머니와 불안정 애착형성을 한 영향력이 자녀에게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연구 참여자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반복적인 기능, 관계 패턴 등을 사고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였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자신의 친정

41) 정옥분 외, 『애착과 발달』, 186.

42) 정옥분 외, 『애착과 발달』, 197-198.

어머니와의 경험이 현재 자신과 아들과의 문제에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담자는 연구 참여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원가족 및 현재 핵가족 내의 체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원가족에서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와 기능이 현재의 핵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게 되자, 아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4-5회기〉 연구참여자, 모 상담: 삼각관계 다루기 (삼각관계 구조와 움직임 등을 확인)

4-5회기에서 상담자는 연구참여자 가족의 삼각관계를 찾아내고, 삼각관계의 구조와 움직임의 흐름을 확인한 후, 삼각관계의 움직임의 흐름을 반대로 놓는 상담을 진행하였다.<sup>43)</sup> 연구참여자의 핵가족 삼각관계를 살펴보면, 연구참여자, 여동생, 어머니 삼각관계, 그리고 연구참여자, 어머니, 아버지의 삼각관계 등 핵가족 내에서의 상호 맞물린 삼각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 삼각관계의 구조와 삼각관계 내에서 움직이는 흐름의 방향이 파악되면, 탈삼각화를 하기 위해 첫번째로, 관계의 움직임의 방향을 반대로 놓는 실험을 할 수 있다. 체계 내에서의 한 사람이 감정 반사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움직였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험하도록 하는 것이다.<sup>44)</sup> 상담자는 연구참여자의 핵가족의 일차적 삼각관계(연구참여자, 여동생, 어머니 삼각관계)의 움직임의 흐름을 반대로 하기 위해 밀착되어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관계에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연구참여자와 어머니의 갈등을 줄여나가고 관계 개선을 증가시키기 위한 관계 실험을 하였다. 상담자는 연구참여자와 어머니가 단 둘이서 함께 할 수

43) Philip J. Guerin, Jr., Thomas F. Fogarty, Leo F. Fay, & Judith Gilbert Kutto, *Working with Relationship Triangle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6), 224-229.

44) Guerin, Fogarty, Fay, & Kutto, *Working with Relationship Triangles*, 227-228.

있는 과제를 내주었고, 연구참여자와 어머니는 함께 쇼핑하기, 영화보기 등을 통하여 일대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가족구성원과 일대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신을 규명해 나가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sup>45)</sup> 연구참여자는 처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외출하는 것이 어색하고 쑥스럽기도 하였지만, 여동생 없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자신이 어머니에게 관심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어머니는 둘째 아이 없이 연구참여자와 둘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였지만,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것을 가능하면 수용해 주려고 노력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4-5회기에서는 어머니와 자녀의 갈등을 줄여나가고 관계 개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관계실험을 진행하였다.

〈6-7회기〉 연구 참여자, 모 상담: 삼각관계에서 정서적 과정을 다루고, 향상된 기능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함

삼각관계 다루기에서는 삼각관계의 구조와 움직임의 흐름을 반대로 놓음으로써 개입을 시작한 후, 증상의 아래에 숨겨져 있었던 정서적 과정을 노출시키도록 한다.<sup>46)</sup> 따라서 상담자는 본 회기에서 연구참여자와 어머니, 여동생의 삼각관계 움직임의 흐름을 반대로 바꾸어 놓는 관계실험을 한 후, 어머니와 연구참여자의 정서적 과정을 다루었다. 어머니가 자신의 친정어머니로부터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어떠한 감정들을 느꼈는지, 친정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어머니는 어떠한 느낌이었는지에 대하여 다루었다. 상담자는 어머니의 친정어머니가 이러한 딸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 같은지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상담자는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 등을 다루어줌으로써 어머니가 향상된 기능의 방향으로 움

45) Harriet Lerner, *The Dance of Anger* (New York: Harper & Row Press, 1989), 220.

46) Guerin, Fogarty, Fay, & Kutto, *Working with Relationship Triangles*, 235.

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담자는 자녀가 현재 핵가족 내에서 느꼈던 분노, 불안, 억눌렸던 감정들을 풍선에 적도록 하였다. 그리고 풍선에 공기를 넣은 후, 그 풍선들을 하나씩 터트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녀가 새롭게 갖고 싶은 감정들이 무엇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머니와 자녀가 서로에게 각각 기대하는 부분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인은 삼각관계에 놓여 있는 구성원으로써 다른 두 사람으로부터 정서적으로 거리가 먼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sup>47)</sup> 상담자는 연구참여자와 아버지의 소원한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코칭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아버지는 가족체계 내에서 외부인의 위치에 놓여있었다. 외부인의 위치에 놓인 아버지와 자녀의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자는 두 사람이 함께 즐겁고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했으며, 연구참여자는 아버지와 운동하는 것을 즐거워하여서 그러한 기회를 자주 갖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녀와 아버지가 가까워지는 기회를 갖게 될 때, 상담자는 어머니가 남편에게 지시, 간섭, 끼여들기 등을 하지 않도록 코칭하였다.

(8-9회기) 연구참여자, 모 상담: 자신에게 초점 두기 및 변화 유지, 종결을 함

8회기에서 상담자는 연구참여자와 어머니가 각각 자신에게 초점 맞추기(self-focus)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신에게 초점 두기는 자신의 어떤 부분이 고통과 관계의 불편함에 기여하고 있는지 자신의 부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다. 대체로 관계상의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부분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데 관계갈등에 의한 분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측면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초점 맞추기는 관계상의 문제가 상대방의 한계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계점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sup>48)</sup> 그러므로 8회기에서는 어머니가 아들과 남편을 비난하는 것에서 벗어나 어머니 자

47) Guerin, Fogarty, Fay, & Kutto, *Working with Relationship Triangles*, 67.

48) Guerin, Fogarty, Fay, & Kutto, *Working with Relationship Triangles*, 42-43.

신에게 초점을 두도록 하였다. 어머니는 자신이 아들에게 잔소리를 심하게 하고, 아들과 아들 친구들을 비교했던 부분 등에 대하여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는 자기에 초점두기를 통하여 아무 말 하지 않고 학교수업 중간에 무단이탈을 해서 친구들과하고 가출한 부분, 부모에게 거짓말 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 등 자신의 부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와 연구 참여자는 서로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고, 연구참여자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나서,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상담과정을 통하여 아들에게 감정반사적 행동을 줄이고, 따뜻하고 다정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도 상담과정을 통하여 어머니와 약속한 부분 등을 지킬 수 있는 조절능력이 생기게 되었고, 또래관계에서도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와 자녀는 자기에 초점두기를 통하여 서로를 비난하는 표현과 행동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다. 9회기에서는 어머니와 자녀가 그동안의 변화를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을지 등에 관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종결하였다. 본 상담을 통해 어머니는 감정 반사적 행동을 줄이고 자녀를 비난하지 않게 되었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변화됨에 따라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갈등도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는 지각, 무단결석, 가출하는 행동이 감소되었고, 가족관계뿐 아니라 또래관계, 학교생활 등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 4. Bowen 가족상담이론에 관한 기독교상담적 적용

Larry Graham에 의하면 가족은 여러 가지 심리-체계적 기능들을 한다고 하였다. 가족은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수용해주는 소속의 장이라는 것이다. 가족 안에서 우리는 정서적 친밀감과 거

리감의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능력을 발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은 우리 삶의 가치, 역할, 규칙, 사회화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up>49)</sup> Graham은 인간은 개인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가족이나 사회, 문화, 그리고 자연 우주 전체와의 관계에서 살아야 하는 공동체적 존재라고 하였다. Graham에 따르면 가족은 심리-체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는 관계적인 장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인간은 개인적인 존재이지만 체계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Graham의 목회상담 이론을 심리-체계적 방법론이라 한다. 개인, 가족, 사회, 문화 그리고 자연이 각각 독립적인 위치를 지니면서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물망이라고 하였다.<sup>50)</sup>

Bowen이론은 가족의 기원과 역동의 생성 과정이 다른 동물들과 동일 선상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자율성, 의존성, 독특성, 믿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족 제도를 통해 전달, 완성되는 그의 언약에 대한 약속이나 축복에 따라 이루어지는 가족의 회복 현상은 설명하지 못하였다.<sup>51)</sup> 그러므로 Bowen의 가족상담이론을 기독교상담적 관점에서 재조명해보면, 첫째, 자기분화는 기독교인의 영적분화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적절한 자기분화는 내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며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추구한다.<sup>52)</sup>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개별성과 연합성의 균형을 이루어, 타인에게 민감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무책임함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 은

49) Larry K. Graham, *Care of Persons, Care of World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2), 56.

50) 한국목회상담학회 편, 『현대목회상담학자연구』 (서울: 돌봄, 2011), 271-277.

51) 조난숙 외, “창세기 가족의 보웬 가족상담적 분석 및 성경적 함의”, 322.

52) 김영근, “보웬의 가족치료이론에 근거한 신학대학원생의 가족배경 분석 및 상담”, 182-183.

혜를 경험하고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개별성과 연합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sup>53)</sup> 그러므로 영적분화란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 또는 융합하지 않고, 개별성과 연합성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자신과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죽음과 장자권에 대한 불안 앞에서 자신과 타인을 속이고, 회피하며, 경쟁하고 편애하는 미분화된 자신에 의한 다세대 전수 현상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불안이 감소되었고,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져 목표 지향적이며 개별성과 연합성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할 때 자신의 술수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형식에서의 반응을 맡기게 되고, 그것이 결국 에서와 화해하며 연합하는 기초를 놓았다. 요셉 역시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 때 형들과 연합하여 함께 울 수 있었다. 20세기 초반에 형성되기 시작한 Bowen의 가족상담 이론에 사용된 지적 체제 개념에는 유한한 인간이 사고하고 인식, 판단한 경험만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라고 가르친다. 지혜와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적 작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sup>54)</sup>

둘째, 불안이 자신의 어머니와의 불안정한 애착 관계에서 파생된다고 본 Bowen의 시각은 적절하였다. 그러나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면 생명의 위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야 한다는 점을 Bowen이론에서는 간과하였다. 아브라함 가족의 불안은 두 가지 모습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고, 다른 하나는 언약의 성취와 관련된 후

53) 최은영, “보웬의 자아분화와 룯기 신학”, 212-213.

54) 조난숙 외, “창세기 가족의 보웬 가족상담적 분석 및 성경적 함의”, 320-321.

손의 출생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당시의 가나안 문화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 가족에게 생명과 종족의 보존 여부와 장자권의 계승 문제는 계속되는 불안요인이었다. 아브라함은 이방종속들의 환경적 위협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을 보였는데, 그것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한 거짓말이었다. 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음으로 인한 위협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 조급함을 나타내었고, 그로 인해 하갈을 통해 자녀를 보고자했다.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 사라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였으며, 이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창21:9), 불안의 연쇄 과정을 보이며, 가족 내에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 성경적으로 보면 불안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비롯되며, 불안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sup>55)</sup>

셋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삼각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때, 영적 자기분화 수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낮은 영적 자기분화 수준은 이 세상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소명의식을 잃고 다른 무엇인가로부터 안정감을 얻으면서 일시적인 불안을 감소시키려 한다. 기독교신앙의 입장에서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에게만 있다.<sup>56)</sup> 그러므로 탈삼각화를 하기 위해 상담자는 연구참여자와의 치유적 삼각관계를 형성하는데, 이것을 기독교상담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하나님, 연구참여자, 상담자, 치유적 삼각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가계도 작업을 하는 목적은 한발 물러서서 자신의 가족체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기독교상담적 관점에서 적용해 본다면, 영적 가계도를 작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참여자의 영적 신념이 다른 가족원과의 사이에 유대감을 주는지 갈등의 요인인

55) 조난숙 외, “창세기 가족의 보웬 가족상담적 분석 및 성경적 함의”, 305-322.

56) 김영근, “보웬의 가족치료이론에 근거한 신학대학원생의 가족배경 분석 및 상담”, 184.

지, 연구참여자의 영적 관점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연구참여자의 삶에서 영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장과정에서 영적의식이나 신념을 가지고 성장했는지 등<sup>57)</sup>을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자는 연구참여자들이 가족을 포함한 자신의 문제를 파악할 때 연구참여자가 어떠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는가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내리고 이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sup>58)</sup>

### III. 닫는 글

본 연구는 불안정 애착의 세대 간 전이를 경험한 어머니-자녀를 대상으로 Bowen의 체계론적 가족상담이론을 적용하여 총 9회기에 걸쳐 모-자녀 상담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기초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유형이 연구참여자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형성은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자녀의 문제행동에도 영향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어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을 때 감정 반사적 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는 어머니로부터 인정, 지지, 칭찬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호소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으로 인하여 연구참여자는 분노, 불안, 억눌린 감정 등이 공

57) Monica McGoldeick, Randy Gerson, & Sueli Petry, *Genograms: Assessment and Intervention*, 이영분 외 역, 『가계도 사정과 개입』(서울: 학지사, 2011), 81.

58) 조난숙 외, “창세기 가족의 보웬 가족상담적 분석 및 성경적 함의”, 323.

격성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가족관계, 또래관계, 학교생활 등에서 공격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또한 어머니 자신의 우울과 불안은 자녀에 대한 양육의 민감성을 저하시켰으며, 어머니의 감정에 따라 자녀에게 비일관적인 훈육을 하는 등 일관적이지 못한 양육행동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자녀의 불안정한 애착형성은 자녀의 공격성, 가출, 무단결석 등 다양한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어머니의 불안정한 애착형성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안명희의 선행연구<sup>59)</sup>와 일치하며, 부모애착 영향력의 지속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결과<sup>60)</sup>와 유사한 맥락이다.

둘째, 연구참여자 가족의 애착형성에 관한 세대 간 전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와 어머니, 외할머니의 세대 간 애착유형을 살펴본 결과, 불안정한 애착형성이 전수됨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의 어머니는 자신의 친정어머니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으며, 친정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도 상담초기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라고 하였고, 어머니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소외당했다고 하였다. 이것은 애착의 수직적인 영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세대 간 미분화가 전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의 어머니는 성장과정 중에 불안과 우울 등을 경험하였고, 이것은 자녀와 상호적인 관계에서 양육행동의 민감성을 저하시켰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게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어머니는 자신의 불행했던 아동기 경험 때문이라는 이론<sup>61)</sup>을 지지하며 어머니의 애착유형은 아동의 애착안정성을 예측하는 한 부분으로써 작용한다는 이경혜의 연구결과<sup>62)</sup>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59) 안명희,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879.

60) 김재철 외,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의 영향 비교”, 108.

61) 정옥분 외, 『애착과 발달』, 284.

62) 이경혜, “불안애착아 발생 위험요인의 예측과 세대간 전이에 대한 조기 중재”, 102.

따라서 상담자는 과정질문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원가족 안에서의 경험과 관계 패턴이 현재의 핵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사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머니는 자신의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반복되는 패턴이 현재 자신과 자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됨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 어머니는 아들을 비난하기 보다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아들의 자원 등을 발견하게 되었다.

셋째,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어머니-자녀에게 Bowen의 체계론적 가족상담이론을 적용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상담자는 연구참여자 가족의 상호 맞물린 복잡한 삼각관계를 찾아내고 삼각관계의 구조와 움직임의 흐름을 확인 한 후, 탈삼각화를 실시하였다. 상담자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밀착된 관계, 연구참여자 어머니가 갈등관계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상담자는 관계실험을 통하여 어머니와 여동생이 일시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도록 하고, 연구참여자 어머니가 갈등을 줄여나가고 함께하는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코칭하였다. 상담자는 연구참여자 어머니가 다른 가족 구성원이 끼어들지 않은 채, 일대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 어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참여자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관심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담자는 외부인에 놓여있는 아버지를 기능적인 위치로 올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고 참여하지 않았으나, 본 상담을 통하여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활동을 아버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담초기에는 연구참여자 어머니는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였지만, 종결 시에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한계점을 받아들이는 자신에게 초점두기(self-focus)가 가능해졌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유형의 세대 간 전이를 경험한 어머니-자녀에게 Bowen의 체계론적 가족상담 이론을 적용한 결과, 연구참여자 가족의 기능과 체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참

여자의 가출을 줄이고, 또래관계, 학교생활 적응에도 도움이 되었으며, 어머니-자녀 관계 개선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자는 본 연구에서 Bowen의 체계론적 가족상담 이론의 탈삼각화, 관계실험, 코칭, 자기 자신에게 초점두기 등의 상담기법을 활용하여, 어머니와 자녀의 불안을 낮추고 감정반사적 행동을 감소시켜 분화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 연구를 위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단일사례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중사례로 연구하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전, 사후 객관적인 애착척도 및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애착 척도 및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하여 상담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주기를 기대한다. 셋째, Bowen의 가족상담이론의 효과 및 유지에 관한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추후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어머니와 자녀에게 Bowen의 체계론적 가족상담 이론을 활용하여, 어머니-자녀의 변화과정 및 반응, 상담자의 개입방법 등을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 참고문헌 】

- 김유숙. 『심리치료이론과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2012.
- 김영근. “보웬의 가족치료이론에 근거한 신학대학원생의 가족배경 분석 및 상담”.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6권(2011): 173-202.
- 김재철 외.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의 영향 비교”. 한국아동교육학회. 『아동교육』 제19권 1호(2010): 97-113.
- 나선영·안명희.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6권 3호(2011): 331-355.
- 박태영·박진영. “틱장애 아동의 가족치료 다중사례 내용분석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8권 2호(2007): 27-56.
- 박영주·이영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임상』 제29권 2호(2010): 441-452.
- 박애규.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우울 및 대인불안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9.
- 박진아. “까다로운 기질과 불안정한 애착으로 인한 불안장애 여아의 놀이치료 및 어머니 상담사례연구”.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놀이치료연구』 제12권 1호(2008): 51-69.
- 서은주·이현림.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성인애착, 자아존중감 및 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제18권 2호(2011): 101-123.
- 신경림 외.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 신혜섭. “보웬 가족치료 이론과 한국적 적용에 대한 고찰”. 동덕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 제7권(2002): 193-201.
- 안명희.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한국 심리학회지:일반』 제29권 4호(2010): 867-885.
- 이영하·최광현. “가족각본의 목회상담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0권(2013): 219-245.
- 옥 정·방희정. “애착의 세대간 전이: 탐색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5권 2호(2012): 45-65.
- 이경혜. “불안애착이 발생 위험요인의 예측과 세대 간 전이에 대한 조기중재:

- 한국과 캐나다의 국가 간 비교”.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정서·행동장애연구」 제26권 3호(2010): 91-111.
- 이한욱. “애착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대학원, 2008.
- 황영훈·박은영, “애착이론과 자아분화이론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1권 1호(2003): 158-173.
- 정보영. “한국가족의 만이문제와 치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대학원, 2010.
- 정문자 외. 『가족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7.
- 정옥분 외. 『애착과 발달』. 서울: 학지사, 2009.
- 정옥분. 『전생애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2004.
- 전우경. “영아의 애착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효과”.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2002.
- 전효정. “어머니-유아 애착의 세대 간 전이의 메커니즘”. 열린육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 연구」 제8권 3호(2003): 159-174.
- 조난숙 외. “창세기 가족의 보웬 가족상담적 분석 및 성경적 함의”.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 제20권(2010): 299-326.
- 채영이. “중학생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 최선령. “아동기 학대피해 여성의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5권 1호(2007): 159-188.
- 최연화. “원가족 애착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 커플관계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대학원, 2011.
- 최은영. “보웬의 자아분화와 룯기 신학”. 한국목회상담학회. 「목회와 상담」 제19권(2012): 188-218.
- 한국목회상담학회 편. 『현대목회상담학자연구』. 서울: 돌봄, 2011.
- Creswell, John W.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조홍식 외 역.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2010.
- Graham, Larry K. *Care of Persons, Care of World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2.
- Guerin, Philip J., Thomas F. Fogarty, Leo F. Fay, & Judith G. Kutto. *Working with Relationship Triangle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6.
- Holmes, Jeremy.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London: Routledge

- Publisher, 1993.
- Kerr, Michael E. & Murray Bowen. *Family Evaluation*. New York: W. W. Company, 1988.
- Lerner, Harriet. *The Dance of Anger*. New York: Harper & Row Press, 1989.
- McGoldeick, M., Gerson, R. & Petry, Sueli. *Genograms: Assessment and Intervention*. 이영분 외 역. 『가계도 사정과 개입』. 서울: 학지사, 2011.
- Meredith, Pamela. "Introducing Attachment Theory to Occupational Therapy."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56 (2009): 285-292.
- Nichols, Michael P. & Richard C. Schwartz.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Boston: Allyn & Bacon Press, 2001.
- O'Gorman, Shannon. "Attachment Theory, Family System Theory, and the Child Presenting with Significant Behavioral Concerns." *Journal of Systemic Therapies* 31 (2012): 1-16.
- Pace, Cecilia S. & G. C. Zavattini. "Adoption and Attachment Theory' the Attachment Models of Adoptive Mothers and the Revision of Attachment Patterns of their Late-Adopted Children."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7 (2010): 82-88.
- Papero, Daniel V. *Bowen Family Systems Theory*. Boston: Allyn & Bacon Press, 1990.
- Parpottas, Panagiotis. "Working with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i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rom an Attachment Theory Perspective." *Counselling Psychology Review* 27(2012): 91-99.
- van Ecke, Yolanda, Robert C. Cope, & Paul M. Emmelkamp. "Bowlby and Bowen: Attachment Theory and Family Therapy."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Journal* 3(2006): 81-108.
- Zeanah, Charles H., Lisa J. Berlin, & Nei W. Boris. "Practitioner Review: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2(2011): 819-833.

254 / 복음과 상담 • 제21권

## 【 Abstract 】

## A Case Study o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secure Attachment from a Mother to her Child : Based on Bowen's Family Counseling Theory

Da-Mi Lee  
Yonsei University

There is a clear connection among the pattern of attachment,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ttachment and Bowen's family counseling. In multigenerational family counseling it has been seen through history that the emotional process of a family passess from one generation to next and unsolved or tangled problems of the previous generation can easily cause similar problems to the following generation.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see firstly how the pattern of insecure attachment of a mother will influence her children. And secondly how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ttachment of the client' family take place and thirdly, what changes can be detected after applying the Bowen's family counseling to the mother with an insecure attachment pattern to her child.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a male adolescent attending middle school. This client had problems with his mother due to his frequent conflicts with his peers, tardiness, absence, and running away from home inci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the mother's insecure attachment pattern did not influence positively on mother-child relationship where as it caused her child's problem behaviors indirectly. The mother's depression and anxiety hindered her sensitivity toward the child as a mother. Second, the family attachment pattern of the client showed that client, his mother, and his grandmother all have the insecure attachment. Third, after applying Bowen's family therapy to the client and his mother who has the insecure attachment pattern, it is showed that there were changes in family function and system and improvement of mother-child relationship along with the client's problem behaviors and school adaptation ability.

**Key words:** Bowen's family counseling, attachment, pattern of attachment, internal working models,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ttachment